

△유년기



에히메현 이요국 온센군 미즈하마(현재·마즈야마시 미즈) 태생. 어머니는 2 살때, 이요 마즈야마한히사마즈가의 도사 사무라이신 아버지는 6 살때 돌아가셨다.

형이 1명, 누나가 3명의 5 형제. 10살우의 형은어린시절 병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미즈노(코토쿠)를 상속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미즈노(코토쿠) 제대로 한 교육을 받기위해 아버지께서 가장 신뢰하고 있던 백부이신 사사이의 집에 맡겨졌다. 그 외 형제도 뿔뿔이 친척집에 맡겨져 불행한 가정환경으로 자랐다.

어린시절 장난꾸러기였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어 장난 질을 하고있었다. 별을 자주 받고 있었으나 성적은 우수해 졸업시험에서 상을 받을 정도였다.

메이지의 중기는 중학교에 다니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생활 할수있다」는것은 거짓이 아닌 시대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약도 사지 않고 열심히 모은 돈을 백부에게 맡기고 있었다. 미즈노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여 중학교에 진학한다. 일본의 경제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비지니스맨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했다. 「출세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관이 된다는 시대였다. 미즈노는 처음은 육군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동급생부터 해군이 되는것이 장래적으로 유망하다고 권유받아 응모를 해군으로 변경한다.

△해군병학교~제 1 차세계대전

1893(메이지 26) 년 3 월 졸업시험에서 낙제를받아 그것을 기회로 중학교를 퇴학한다.

해군사관학교의 입학시험 과목은 수학, 영어, 한문의 3 과목. 수험자격은 아무 제한도 없고 중학교의 졸업증서도 교장의 증명도 필요없는 시대였다.

그러나 다음 해가 되어 군사학교의 시험에 지금까지의 3 과목이외 일반 보통 학과제가 덧붙여졌다. 이과목은 거의 게으르고 있던 미즈노는 다시 공부할 필요를 느껴 중학교에 복학한다.

드디어 에타지마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 3 년간의 훈련과 원양실습을 경과하여



1900(메이지 33) 년 해군 소위가 된다. 미즈노 25 살이었다.

수뢰정장에 임명받은 다음 해의 1904(메이지 37) 년 2 월 러일전쟁이 시작된다.

미즈노는 전쟁기간을 통해 수뢰정장으로서 뤼순봉쇄나 일본해 해전에 참가한다. 그 중군 기사는 「전 영」(뤼순법삼중군사기사) 「차일전」(일본해 해전기)에 수록되고 있다. 「전 영」은 사령부에서 명이 내려 당시의 실천기를 쓰고 제출한 것이었다.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어 해군에는 중군기자가 없었던 것과 실전에 참가한 군인이 집필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군의 전사기자로 사업하면서 「차일전」을 쓰지만 이것이 우연하게도 평판이 되어 미즈노는 문장가로서 「선생님」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독서에 의해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어 점차 관직의 등급이나 훈장이라는 형식적인 직함에 흥미와 동경을 잃어버리게 된것 같다. 강자의 횡포에 대한 반감과 약자의 굴욕에 대한 동정심은 세상의 실상을 보고 더욱 더 강해져 나갔다. 미국이 무력으로

일본을 압박 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대하게 만들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일·미 전쟁을 예상한 「다음의 일전」을 쓴다.

1914(타이쇼 3) 년 제 1 차 세계 대전이 시작. 미즈노는 세계대전을 시찰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 사비 유학을 신청한다. 1916(타이쇼 5) 년 7 월에 도쿄를 출항해 인도양 항로에서 희망봉을 돌아 9 월에 런던에 도착하였다. 런던, 파리, 로마를 시찰하여 다음 해 8 월 귀국했다.

△독일 유학~평론 활동

1918(타이쇼 7) 년 11 월 휴전 조약이 체결됨, 제 1 차 세계 대전은 간신히 끝났다. 미즈노는 패전국 독일을 보기 위하여 다시 사비 유학을 하였다. 패전의 고통과 슬픔에 가라앉는 독일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인류와 전쟁, 국가와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패전국은 말할것 없고, 전승국의 국민들도 전전보다 과연 행복하게 되어 있을까, 미즈노는 느낀다. 어느 나라도 물자의 결핍과 생활난, 노동불안정으로 만들게 되었다. 비록 전승국도 승리로 얻은 것과 전쟁으로 잃어버린것을 갚기에는 도저히 부족했다.

전쟁은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미즈노의 군국주의 사상은 근본으로부터 뒤집어진다. 전쟁의 도덕가와 인간의 생명가치를 생각하게 되어 인류 최대의 행복인 세계평화는 군비의 철폐로 실현된다는 이론을 얻었다.



1921(타이쇼 10) 년 미즈노는 25 년 6 개월의 군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때 법률규칙이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검을 매지않다고 딱딱하게 맹세하여 검과 영원한 이별을 하였다. 미즈노 46 세.

퇴역후도 집필하여 태평양전쟁으로 향하는 사회정세를 배경으로 일·미의 대립격화를 걱정해 평론을 계속 보냈다.

△하군대사로 해군과 결별, 군사평론가, 저널리스트에



1921 년(타이쇼 10 년) 정월 미즈노는 「도쿄 니치니치신문」(현재의 매일신문)에서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군대의 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군대의 민주화, 군인의 참정권을 주장한 논문을 발표한다. 여론은 「드디어 해군내에도 사회주의에 물든 군인이 출현했다」고 관심을 가졌다.

미즈노는 이 논문을 상관의 허가없이 발표했으므로 30 일간의 근신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미즈노는 동년 8 월, 군과 영원한 이별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 미즈노는 검을 펜으로 바꾸어 일본을 대표 하는 론두껍고 쭈글쭈글한 일본종이에, 군비 철폐론이나 군축론을 집필해 나간다.

「1937 년(쇼와 12) 년 우가키 카즈시게의 내각 조성이 망하게된것은 군부가 군부 대신무관제를 앞세워 육해군대신을 보내는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즉, 전전에 정부가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해져 버린 것은 군부대신무관제에 있다.」

이와같이 미즈노는 빠른 단계에서 군부대신무관제의 문제점을 간파해 「군부 대신 개방론」(「중앙공론」 타이쇼 14년 1월호)에서 시빌리언 콘트롤의 중요성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식자의 대부분이 미즈노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선견성을 가지고 있었을지가 알수 있다.

1922 년(타이쇼 11 년)에 워싱턴 군축회의가 체결되어 일본은 영미와 비교해 크게 주력전함 보유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24 년에는 미국에서 배일 이민법이 가결되었다. 이것에 의해 일본내에 반미 감정이 높아져 일·미개전이 클로즈업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군사 평론가들은 일·미전쟁을 긍정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미즈노는 그러한 여론과는 정면으로부터 반항하는 논진을 발표하였다.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되면 일본은 반드시 진다」

1923 년(타이쇼 13 년) 2 월에 카토 유조수상 우에하라 유사쿠 참모장은 미국을 가적으로 하는 신국방방침을



제작했다. 거기서 미즈노는 「신국방방침의 해부」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미즈노는 「현대전은 병력보다 경제력, 국력의 싸움이다. 많은것을 검토하자면 우리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뒤떨어져 장기전에 대응할수 없을 것이다.」고 논하고 있다. 더욱, 이러한 국방 방침은 머리가 미치지 않는한 제안 할수가 없다. 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시의 여론과는 정면으로부터 대립한 생각이었다.

또한 「실전의 전쟁에서는 공군이 주체가 되어 도쿄 전시는 미군에 의한 공습에 의해 하룻밤으로 잿더미가 될것이다. 게다가 장기전이 되는 것을 상정하면은 일본의 패전은 면할 수 없다.」하여 일·미 개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도쿄 대공습이나 일본의 패전은 20 년 이후에 미즈노가 지적 한 데로 현실이 된다. 미즈노는 미리 태평양전쟁의 20 년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워싱턴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미즈노는 「유사이래 인간이 해낸 가장 신성한 사업」이라고 절찬해 조약을 평가했다. 사람들이 정부나 여론에 의해 놀아나는 동안 미즈노는 스스로의 눈에 의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경제생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던 미즈노는 「미국이 일본을 망치기에는 대포가 아니라 미국아가씨가 비단을 스트라이크 하는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일·미 협조가 필요하며 미국과 전쟁이 되면 경제 상황에서 위기가 다가오는것을 여기하는 일문이다.

이와 같이 미즈노는 전쟁을 위구해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한채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일·미비전쟁을 주장, 군축, 군부대신 개방론을 주창한다

1924(타이쇼 13) 년 가을 일본군은 태평양에서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대규모의 해상연습을 실시한것이 발단이 되어 일·미 전쟁의 논의에 단번에 불이 붙었다. 이러한 여론의 위기감을 느낀 미즈노는 「일·미 양국국민들은 냉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한다.

한층 더 미즈노는 「일본은 일·미의 대립의 원인은 쌍방의 공포와 위구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여론중에서 일본의 국민이 전쟁과 자신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자만하여서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식자, 제국주의자나 군국 주의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민의



시의심이나 공포심을 눈에 띄게 써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1924(타이쇼 13 년) 1 월 우가키 카즈나리가 처음으로 육상으로 취임해 군대의 제도가 확립하고 처음으로 군축에 착수했다. 미즈노는 손을 들어 찬성해 군축에 대해서 반대를 한

군부들에게 「국방과는 본래 국가, 국민의 방위이고 결코 군인을 위한 국방은 아니다. 국방에 종사하는 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제적 견식, 경제적 견식이 높은 인물들이 말아야 할 것이고 군국주의자나 제국주의의 군인들만이 말아서야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여러 사람들이 국방의 의미를 잃어 걸치고 있었을 때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움이다.

정부가 군부의 생각대로 조종한 요인의 하나인 군부대신(현역) 무관 임명제, 통수권의 독립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군부 대신(현역) 무관 임명제에 대해서는 무관의 출신을 불문하고 적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군인이 동맹 거부를 하면 어떤 인물도 내각의 내각 조성,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통수권 독립론에 관해서는 군락을 위해서 정략을 희생하면 그 피해는 심대한 것이 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 했다. [「군부 대신 개방론」(「중앙공론」타이쇼 13년 8월호)]

△집필금지에 노래에 심경을 담는다

시국의 악화에 의해 미즈노는 집필을 단념한다. 쇼와 9년에는 미즈노는 스스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로 하였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만하여 싸움을 좋아하는 전인이 있다」
「알수없는 백성을 치켜세워 싸움터로 보내는 야심가도 있다」
「자신들의 힘을 알지못하면서 오로지 강경세 말을 백성은 기뻐한다」
「싸우면 반드시 사면초가의 소리 3천년의 역사 애련 멸망하지 않다」
「침략의 꿈을 꾸리며 패배의 철답밟을 백성아 애련하구나」
「힘도 실수령액인 것은 힘을가져 놓칠것을 알거야 모를거야」

1934, 35(쇼와 9, 10)년에 걸쳐 군부의 항쟁이 격화해지는 과정에서도 미즈노의 전망은 적확했다. 미즈노는 친구의 마츠시타에 보낸 편지에서 「육군내의 분쟁이 어디까지 발전할까는 모르지만 결국은 전쟁을 하여 혈족끼리 결렬히 싸울 때까지는 이 항쟁은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술하여 일본의 현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이 반년 후에 육군의 황도파와 통제파의 항쟁은 마침내 미즈노의 예상대로 2.26 사건까지 발전하였다.

△일기로 시국피판,히틀러의 본질 간파한다

일본이 전쟁에 매몰해 나가는 가정에 미즈노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범위는 좁혀진 탓으로 갈 곳을 잃은 감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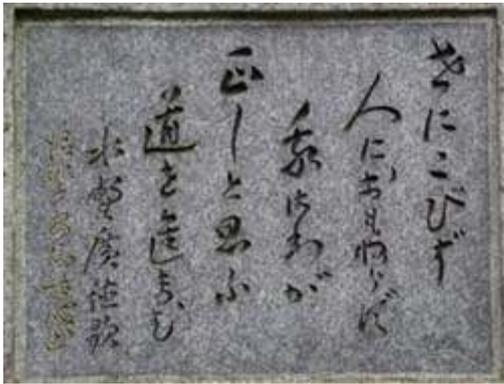
일기에 토로되고 있다. 1939(쇼와 14)년 히틀러가 폴란드에 침략하여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서 미즈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독일과 이태리 군사동맹 성립. 일본도 이것에 참가하라는 패거리가 있음. 위험할 것이지. 날뛰는 무사, 두명 동반하여 꽃놀이까」(5월 22일자)

폴란드가 분할된 시점에서는 「대낮의 강도, 소련도 결국 침략주의에 떨어져 자본주의 국가와 다름이 있을까. 스탈린도 또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 히틀러, Mussolini 와 무슨 다름이 있겠어」(9월 22일자) 히틀러의 방약 무인인 행동이나 스탈린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층 더 영국, 프랑스의 연약한 자세에 대한 불평도 여기저기로 보여진다. 특히 히틀러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에게 양심이 있느냐. 상식이 있느냐. 단지 평화의 파괴자 뿐이 아니라 실로 역도덕의 파괴자이다. 그를 총통으로 받아 의들로서 그 목숨을 받드는 독일 국민의 양심을 의심한다. 타기하기 위하여 경모하여 구배해야지. 이제 지금 항상 독일을 존봉하여 히틀러를 숭배하는 일본인의 대 다수는 바보 아닐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치로 할것이니 히틀러의 이 폭만무치의 성명을 전쟁 공포증의 영불의 나오는 태도는 어떨까?」(9월 30일자)

돌이켜 보면은 미즈노의 경고나 예언은 당연한 지적에도 보인다. 그러나 약 70년전의 시대 상황으로 이만큼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던 지식인은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

△드디어 집필금지,피난, 사망



키류우 유유의 유명한 「관동 방공대연습을 웃는다」(쇼와 8년 8월 11일자)에서 적기가 일본 본토에 내습해 공습을 만나면 일본의 도시는 큰 피해를 받을것이니 적국의 공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것을 불었다. 게다가 물통텔레도 폭격기 앞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 미즈노는 키류우보다 10년 이상 이전에 국제 정세나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알고 키류우와 같은

생각으로 전쟁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그 통찰성, 선견성은 동시대의 지식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던것이다. 반전평화주의자로 군국주의, 파시즘과 싸운 미즈노의 평가는 지금 까지 결코 높다고는 말할수없다. 그는 선구적인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스트이고 과학적 이며 합리주의 적인 사상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1941(쇼와 16)년 2월 정보국이 「중양공론」 편집부에 보낸 집필금지 리스트에 미즈노는 기재되어 버린다.

패전이 다가오게 되자 미즈노는 34(쇼와 18)년부터 고향의 에히메현 오치군

즈쿠라쵸(현 이마바리시)의 세토나이카이 이요 와타리지마에 요양으로 전지하여 거기서 패전을 기다리게 된다.

8월 15일 일본은 마침내 패전을 맞이한다. 친구·마즈시타에 보낸 16일첨부의 편지에는 미즈노는 「나라를 지켜내야 할 군인이 정치를 번농시켜 그것 때문에 패전해 버렸다」라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 향후의 일본에 대하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미신을 버리려야 한다. (9월 27일자)라고 말해 천황제의 폐지나, 국민의 자유 의지를 의한 정치체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 해의 10월 18일 미즈노는 에히메현 이마바리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72세.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임성을 뿌리지도 않고, 나는, 내가 믿는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마즈야마시의 쇼쥬지 (절) 에 있는 미즈노의 무덤의 비에 새겨진 와카이다. 전쟁의 시대와 바로 정면으로 대상한 평화주의자·미즈노의 삶을 상징한 노래가 아닐가...

△ 미즈노 코토쿠와 아키야마형제의 관련

무가사회의 붕괴라고도 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 그후의 아버지의 요절에 의해 그림으로 그린것처럼 하급번사의 딸로를 경험한 미즈노 코토쿠가 6살때 맡겨진 곳이 외가의 숙부에 해당하는 사사이가. 때를같이 하여 아키야마 형제는 숙모의 친가로 아버지 쪽의 사촌형제로서 유소기의 코토쿠도 니카카치마치의 아키야마가에 때때로 심부름하러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일도 있어 미즈노 자신이 「가장 회심한 걸작이다」라고 평가한 「전 영」(뤼순 해전 사기·타이쇼 3년 출판)에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서문을 보내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채용되어 있지 않는다.

(미즈노 코토쿠 유카리의 물건 참조)